

# 대화체에서 부대화의 개시/종료 및 화자의 의도, 그리고 청자 논항의 생략

홍 민표

이 현호

명지대학교 영어과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  
우: 120-728  
mphong@wh.myongji.ac.kr

동양공업전문대학 교양학부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62-160  
우: 152-714  
hhlee@orient.dytc.ac.kr

## Subdialogue Cues, Speaker Intention, and the Deletion of Hearer Arguments in Spoken Korean

Minpyo Hong  
Department of English  
Myongji University

Hyonho Lee  
Center for Foreign Language Education  
Dongyang Technical College

### 요약

본 연구는 한국어 대화인지모형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화용론적 지식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부대화의 개시 및 종료 시점에서 나타나는 담화 참여자의 의도 및 그 의도와 관련된 표층표지를 분석하고, 나아가 필수 논항 성분들의 하나로서 대화체에서는 자주 생략되어 나타나는 청화자 논항의 의미복원을 위한 예비적 단계로서 술어의 어미 특성 및 화자의 언어행위 혹은 화행과 관련하여 청자 논항의 생략 유형을 분류하고 분석했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어 대화 에이전트를 개발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단계로서 향후 대화체 이해시스템 연구에 기초적인 틀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략된 표현이 있는 구문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복원하는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1] 이 중에서도 부 대화가 시작되는 시점과 종결되는 시점을 알리는 언어적 수단으로 단서 구(cue phrases)는 화자의 의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왔고, 또한 이러한 화자의 의도는 문장 내에서 일정한 논항 역할을 하는 명사구의 생략현상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본고에서는 담화 참여자의 의도 및 그 의도와 관련된 표층표지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필수 논항 성분의 하나로 대화체에서 자주 생략되는 청자 논항의 의미복원을 위한 예비적 단계로서 술어어미의 문법적 특성과 청자 논항의 생략 관계에 대해 논한다. 그리고 화자의 언어행위 의도가 청자 생략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화행별로 분류하고, 생략된 청자 논항을 복원하는데 필요한 일반화된 규칙을 제시한다.

### 2 담화 플렌과 부 대화의 유형

한국어 부 대화 (또는 담화 플렌)의 유형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부 대화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 제안하였다.[2]

- 가. 세부정보의 처리
  - ㄱ. 추가
  - ㄴ. 확인
  - ㄷ. 수정
  - ㄹ. 배경정보의 제공
  - 나. 평가·요약

### 1 서론<sup>1)</sup>

문어체와 달리 우리말 대화체를 토대로 대화 인지모형을 구축하려는 연구에 있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화자의 숨은 의도 혹은 화행을 밝히는 문제와, 부 대화의 경계와 관련된 언어적인 단서를 찾아내서 대화 계획을 정확하게 인식시키는 문제, 그리고 생

1) 본 연구는 과학기술처 소프트웨어 과학 특정 연구 지원 사업 중 한국어 대화의 인지모형 연구 개발의 일부임.

다. 화제의 전환

- ㄱ. 상위 대화 → 부 대화
- ㄴ. 부 대화 → 상위 대화

라. 화제의 유지

- ㄱ. 화제의 연속성 유지
- ㄴ. 상황 진행과정의 제시
- ㄷ. 주도권의 탈환

부 대화의 화행 유형	사례의 개수	백분률
세부 정보 확인	34	64.2
배경지식, 이유, 근거 제시	12	22.6
담화 상황의 정리, 요약	5	9.4
이의 제기	2	3.8
총 계	53	100

본 연구에서는 이 제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한다. 첫째, '세부정보의 추가' 및 '상황 진행과정의 제시'는 일반 대화체보다는 방송 대담 프로그램의 특성상 발견되는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위의 부 대화 유형을 일반화시키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부 대화의 유형 목록에서 일단 제외시키고자 한다. 둘째, '화제의 전환'에서는 상위 대화와 부 대화 간의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으려고 한다. 사실 화제가 전환되는 것은 대부분 부대화→상위 대화의 방향성을 지향한다. 상위 대화로부터 부 대화로 들어가면서 전혀 다른 화제로 전환되는 사례는 극히 관찰하기 어렵다.

결국 위의 목록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은 부 대화의 유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 세부정보의 처리

- ㄱ. 확인
- ㄴ. 수정
- ㄷ. 배경정보의 제공

나. 평가·요약

다. 화제의 전환

라. 화제의 유지

- ㄱ. 화제의 연속성 유지
- ㄴ. 주도권의 탈환

이번에는 이들 부 대화의 유형을 다른 관점에서 세분해 보기로 하자. 위의 유형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세부정보의 처리'와 '평가·요약'은 상위 대화로부터 부 대화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관찰되는 담화자의 의도라고 할 수 있고, '화제의 전환'과 '화제의 유지'는 부 대화로부터 상위 대화로 빠져나오는 시점에서 관찰되는 담화자의 의도라고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히 부 대화에 반영된 담화자의 화행, 즉 의도를 관찰한다는 취지에서, '세부정보의 처리' 및 '평가·요약'의 유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3 부 대화의 화행

본 연구에서도 화행의 유형을 분류하였는데, 연구의 목적상 특히 부 대화를 생산하는 시점에 나타나는 화행의 유형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아래의 <표 1>은 부 대화 생산 시점의 화행 유형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부 대화의 화행

<표 1>에서 '세부 정보'라는 것은, 참여자들이 현재 다루고 있는 주요 화제와 관련된 세부 정보를 뜻한다. 표에서도 드러나듯이, 부 대화를 생산하게 되는 주된 원인은 역시 세부 정보의 확인 내지 규명에 있는 것 같다. 그런 의도가 없다면 특별한 대화가 부 대화로 들어갈 이유는 별로 없다고 본다.

세부 정보 확인에 비해서 빈도는 현격히 떨어지지만, '배경지식, 이유, 근거 제시'를 위한 부 대화 생산 행위가 규칙적으로 관찰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이의 제기' 화행도 사실은 이 '배경지식, 이유, 근거 제시' 화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의 제기'란 다시 말해서 '이유, 근거 제시 요구'로 표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 두 화행을 발화에 대한 이유, 근거, 배경지식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화행으로 한데 묶을 수 있다면, 아마도 '이유, 근거, 배경지식 처리'와 같은 동일 범주 속에 넣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담화 상황의 정리, 요약' 화행은 본 연구의 대화 자료가 방송 대화인 특정 때문에 관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일반 대화에서도 상황 정리 및 요약 화행은 관찰될 수 있겠지만, 특히 방송 대화에서는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대화를 정리, 요약하고 넘어가야 되는 입장의 사회자에 의해서 이 화행의 부 대화가 생산되는 것 같다.

4 '세부 정보 확인'과 '내'의 화행

대화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네', '예', '네네'의 담화 기능 또는 화행이 각별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보통 '응답' 화행을 전달하는 표현으로서, 본 연구의 자료에서는 특히 '세부 정보 확인' 화행의 부 대화에서 규칙적으로 관찰되었다. 다음 대화를 살펴보자.

(1)

2: 그러구 지금 그, 저, 업중 변경을 할려고 하는데요.

1: 네네.

2: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지 여쭙어보고 싶구요.

1: 그 자리에서, 그 장소에서 바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2: 예.

1: 네네.

2: 그래서 지금 화장품을 하면 어떨지.

1: 네네.

대화 (1)의 부 대화 안에서 화자 2의 '예'와 화자 1의 '네네'는 전혀 다른 화행을 전달한다. 화자 2의 '예'는 화자 1의 물음, 즉 '그 자리에서, 그 장소에서 바로 할 예정이십니까?'에 대한 '응답' 화행이고, 화자 1의 '네네'는 '부 대화 종결' 내지 '주도권의 이양' 화행을 전달한다. 그 결과로 화자 2는 '화제의 유지' 담화 플랜을 수행하고 그 대표적인 담화 표지인 '그래서'를 생산하여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속해서 다음 자료를 살펴보자.

(2)

- [1] 2: 거기가 버스 정류장이거든요.
- [2] 1: 버스 정류장 앞입니까?
- [3] 2: 예. 바로 앞이에요.
- [4] 1: 그럼 길가겠네요?
- [5] 2: 그렇죠.
- [6] 1: 도로변?
- [7] 2: 네.
- [8] 1: 네네.
- [9] 1: 네. 아, 이, 1층 여덟평 점포는
- [10] 2: 네.
- [11] 1: 아, 할 수 있는 업종이
- [12] 2: 네네.
- [13] 1: 이제, 지금, 아, 4차, 4차선 도로죠?
- [14] 2: 예.
- [15] 1: 그게 왕복 2차선씩 해서 4차선 도로죠?
- [16] 2: 예.
- [17] 1: 예. 우리나라에는 이제 대부분의 점포라고 하는 것은 1층 점포일 때

대화 (2)의 [8]에 나타난 '네네'는 대화 (1)의 부 대화 종결점에서 관찰된 '네네'와 동일한 화행을 전달한다. 그런데 [9]의 '네'는 [8]의 '네네'와 전혀 다른 화행을 전달한다. 즉, [9]의 '네'는 상위 대화건 부 대화건 간에 화자가 새로운 대화 국면을 생산하겠다는 의도의 표현으로 분석된다. 그것은 대화 (2)의 [2]-[8]의 내용과 [9]부터 그 이후의 내용이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도 알 수 있고, 또 화자 1이 '네네'와 '네'를 연이어 발화하는 사이에 [8]과 [9] 사이에 일정 시간의 휴지를 두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8]의 '네네'는 '부 대화 종결 신호'라는 화행을 전달하는 반면에, [9]의 '네'는 '상위 대화 개시 신호'라는 화행을 전달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증거로서, 실제 대화를 분석한 결과, '예', '네', '네네' 등의 표현들은 상대방 화자의 물음에 대한 '응답' 화행을 전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부 대화와 상위 대화의 접점에서만 관찰되었다.

'네'와 '네네'가 공통된 화행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이들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즉, '상위 대화 개시'를 알리는 위치에서는 반드시 '네'만 관찰되고, '네네'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것은 '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들 '네'와 '예'는 '자'가 '상위 대화 개시' 내지 '화제 전환'의 화행을 전달하는 것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네'와 '네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화행은 '예'와 '예예'에 의해서도 전달된다. 그 예가 바로 대화 (2)의 [17]이다. 사실 '네'와 '예'가 형태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이들을 생산하는 화자의 의도라는 관점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외에도 '네'나 '예'를 세 번 반복한 '네네네' 또는 '예예예'의 사례도 동일한 화행을 전달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부 대화와 관련된 '네'와 '예'의 화행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네'의 화행과 부 대화

실현되는 표층 표지	전달하는 화행	실현 위치
네(네(네)) 예(예(예))	응답, 호응  부 대화의 종결 신호	질문, 확인, 확인질문, 요청, 정보제공 행위에 후행  부 대화의 종결점
네, 예	상위 대화 개시 신호	상위 대화의 개시점

### 5 청자 논항의 생략 현상

우리말 대화체에서 생략되는 언어적 단위를 그 유형별로 분류해 볼 때 작게는 격조사를 비롯한 소단위 형태소의 생략에서부터 주어진 문장의 술어에 일정한 의미적 관계를 표시하는 논항 역할을 하는 명사구의 생략, 그리고 구(phrase)보다 큰 단위의 생략 현상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겠다. 이 중 명사구의 생략은 비교적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기존 이론 언어학에서 영대용 표현(zero anaphors)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그 선행사 혹은 지시대상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논항 명사구의 생략현상 중에서도 우리말의 형태 통사적인 특성으로 인해 비교적 쉽게 그 지시대상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청자와 화자를 지칭하는 논항으로서, 여기에서는 청자를 지칭하는 논항이 대화체 문장 속에서 생략되는 환경을 언어적으로 규명함으로써, 대화체 이해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언어적 장치들이 무엇인지 밝혀보기로 한다.

### 6 논항 생략 현상에 대한 관찰 결과

먼저, 본 연구를 위해 녹취 분석한 라디오 대담 프로그램 자료에 따르면, 전체 술어가 요구하는 논항 명사구의 수는 2,925개로서, 이 중에서 생략된 것으로 파악해야 하는 경우가 약 32%(936개

명사구)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말 대화체에서 논항 명사구의 생략 빈도가 격조사의 생략빈도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나아가, 주격 명사구 혹은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는 논항의 생략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어 논항의 경우, 실현 대비 생략 비율이 57%로서 문장의 주어가 실현되는 것보다는 생략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sup>2)</sup>

나아가, 이들 주어 논항 명사구가 생략된 문장 중에서 그 생략된 요소가 지시하는 대상의 성격에 따라 청/화자, 일반인, 기언급 표현 등으로 분류한 결과, 청자와 화자를 지칭하는 주어 논항이 가장 빈번하게 생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대화에 생략된 주어 논항 702개 중에서 238개 (약 33%)가 청자나 화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표 3> 생략된 주어 논항의 지시대상

지시대상 분류	토른 수
1. 청/화자	238
2. 일반인	163
3. 기언급표현 (동일 DS)	167
4. 기언급표현 (상위 DS)	12
5. 특정 어휘 사용	4
6. 담화 전체 정보 (화제)	91
7. 5항 재생략	2
8. 6항 재생략	25
합 계	702

따라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대화 자료의 성격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말 대화체에서는 주어에 관한 한 실현되는 경우보다는 생략되는 경우가 더 빈도가 높고, 나아가 생략된 주어 논항 중에서 청자나 화자를 지칭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일반화된 관찰을 제시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7 청자 생략과 관련된 공기현상

본 연구에서 청자 논항의 생략현상에 관여하는 것으로 파악된 중요한 요소로 화자의 의도 혹은

2) 물론 이러한 계수작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어떤 경우에 생략이라고 보아야하는지의 문제이다. 즉, 우리말에서 내포문의 주어가 주절 주어와 동일한 경우에도 생략으로 볼 것인지 등의 문제와 관련이 깊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인 측면을 떠나, 관계절과 보조용언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료에 나타난 용언 하나 하나에 대해 그 주어 논항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를 생략된 것으로 처리했다.

화행과 깊은 관련을 갖는 양상적 요소, 그리고 문법적인 현상의 결과로 나타나는 우리말의 주어-동사 일치관계 표시인 주체 존재 어미 '-시'의 출현의 두 가지로 파악되었다. 이들 요소에 대한 간략한 고찰을 하기로 한다.

### 7.1 양상(modality)과 화행

지금까지 살펴본 주어 논항의 생략현상에 대한 관찰에 기초하여, 청자를 지칭하는 영대용 표현의 지시대상 결정과정에 관여하는 언어적 요소들을 분류해 보았다. 우선 본 연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 청자논항의 생략에는 의문문, 평서문, 명령/청유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 양상(modality)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의문문과 명령/청유문에서 청자 논항의 생략이 두드러지게 관찰되었다.

#### (3) 의문문

- a.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 b. 어떤 일 하시는데요?
- c. 근데, 관례복을 빌려주시기도 해요?
- d. 네, 여덟 평 짜리 점포 임대 비용이 얼마지 알고 계세요?
- e. 오늘 '동숙의 노래' 하신다고 그러셨죠?
- f. 딸 시집 보낼 때 우셨어요?
- g. 그래도 처음에 뭐, 무일푼은 아니었겠죠? 조금은 자본이 들었겠죠? 어느 정도 가지고 시작 하셨습니까?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청자 논항 생략 구문은 의문문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게 발견되었다. 다음으로 명령문 혹은 청유문으로 분류할 수 있는 양상을 갖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이 발견되었다.

#### (4) 명령/청유문<sup>3)</sup>

- a. 네, 말씀하세요.
- b. 남편께 한 말씀 하세요.
- c. 지금 생각나는 그 때 심정을 좀 말씀해 주시죠.
- d. 건전한 가정을 중심으로 꽃 피는 나라가 되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따라서 표면적인 문장 형태가 생략된 청자논항의 의미 복원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질문이나 청유 등의 의도를 담은 문장이

3) 이 명령문에 관한 한 시스템에 따라 과연 생략된 청자 논항을 복원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논외로 한다. 논리형식에서 명령문의 경우에도 주어를 표시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표면적인 문장형태에 의해서 직접화행으로 표현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표면형과는 일치하지 않는 간접화행의 방식으로 질문과 요청이 표현될 수가 있고, 따라서 그러한 간접화행의 경우에도 청자 논항의 생략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를 실제 본 연구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5) 간접화행

- a. 네, 아, 예상하시는 자금은 충분히 준비가 되셨나부죠.
- b. 남편께 한 말씀 하셔야 되는데.
- c. 끝까지 좀, 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d. 그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e.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고요.
- f. 전체를 다 취급하지 마시고, 향기 향수에 관련된 화장품만 취급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질문 화행과 명령/청유 화행에서 주목할만한 표면적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질문의 경우 간접화행으로 표현되는 경우보다는 직접화행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명령/청유의 경우 간접화행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청자 논항의 생략현상에는 화자의 의도와 관련된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의문문과 명령/청유형 문장의 경우 화자 논항의 생략이 빈번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들 두 가지 화행이 보이는 공통점으로 Searle (1976)이 표상 화행 (representatives), 지시 화행 (directives), 개입 화행 (commissives), 표현 화행 (expressives), 및 선언 화행 (declarations) 등으로 분류한 기준을 따라 살펴 볼 수 있겠다. [4] 다음은 그 전형적인 화행의 예이다.

<표 4> Searle의 화행 분류

화행의 대분류	전형적인 화행
representatives	단언, 결론 등
directives	요청, 질문 등
commissives	약속, 협박, 제안 등
expressives	감사, 사과, 환영 등
declarations	세례, 선전포고 등

Searle에 따르면, 화자가 청자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화행이 바로 지시 화행 (directive speech act) 이고, 또 그 전형적인 예로 요청/청유 혹은 질문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우리말의 화자 생략에 깊이가 관여하는 것으로 보이는 의문문과 명령/청유문 형식은 이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보다 일반화된 관찰일 것이다. 또는,

일반적으로 전산언어학에서 잘 알려진 화행의 분류 방식을 따를 경우 [5, 6, 7, 8], 주로 정보 요구 (ask-ref), 정보 요구(ask-if), 확인요구 (request-confirm), 행위 요구(request-action) 등의 화행에서 청자 논항의 생략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7.2 일치 (agreement) 자질의 역할

문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앞서 살펴본 화행 개념을 통한 청자 논항의 생략현상 규명 노력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접근법은 주어-동사의 일치(agreement)자질을 통한 형태론적 분석일 것이다. 이는 공기관계 (collocational effect) 실현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 또 시스템에 생략 요소의 존재에 대한 직접적인 단서를 형태소 정보만으로도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말의 경우, 주어와 동사어미 사이에 일치자질이라고 밝혀진 존칭표시(honorific marker) '-시'의 유무가 청자논항 복원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대화체의 특성상, 지극히 비공식적인 친구간의 대화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대화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언어에 직접 반영되어서 쓰이기 때문이다. 청자가 주어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그 논항이 생략되어 있다고 해도, 동사어미에 존칭어미의 형태로 주어 존재의 표시가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형태론적 정보도 청자 논항의 복원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한가지 특기할 만한 현상은, 청자 논항이 생략된 환경을 주어 대 목적어로 양분하여 분류해본 결과, 목적어 위치에서는 청자 논항의 생략이 현저하게 드물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주어 논항의 생략과는 크게 차이를 보이는 현상으로 전체 생략된 목적어 논항 117개 중에서, 청자 및 화자를 지칭하는 경우는 단 한가지 경우만이 발견되었을 뿐이다.<sup>4)</sup>

4) 이 관찰은 본 연구에 사용된 라디오 '대담자료에 국한된 관찰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여쭙다' '뵙다' 혹은 '모시다' 등과 같은 용어는 대화체에서 목적으로 사용되는 청자논항을 쉽게 생략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자료에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추가로 수집된 자료에서 실제로 다음과 같은 예문이 발견되었다.

- (i) 그것 좀 여쭙보고 싶어서요.
- (ii) 실제 오늘 뵈니까요, 더 젊어 보입니다.

이는 단지 특수한 '객체존대'의 용법으로 사용되는 제한된 어휘목록에 한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대화상

<표 5> 생략된 목적어 논항의 지시대상

지시대상 분류	토큰 수
1. 청/화자	1
2. 일반인	
3. 기언급표현 (동일 DS)	58
4. 기언급표현 (상위 DS)	6
5. 특정 어휘 사용	
6. 담화 전체 정보 (화제)	48
7. 5항 재생략	
8. 6항 재생략	4
합 계	117

목적어가 생략되는 경우 그 지시대상이 청자나 화자를 가리키는 경우는 드물다는 이러한 관찰을 받아들인다면, 또한 일반적인 대화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시로 청자가 주어로 쓰이는 문장을 발화할 경우에는 그 동사 어미에 존칭표시를 사용한다는 우리말의 문법현상을 가정한다면, 청자 논항이 생략된 구문의 동사 어미부분에는 '-시'와 같은 어미가 존재하리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실제 대부분의 자료에서 청자 논항이 생략된 경우에 존칭 어미 '-시'가 발견되었다.

(6) 주어 존칭표시

- a. 꽃가게를 하고 계시는데...
- b. 그래서 의류점을 하시고자 할 때는 지금 점포를 양도하시고 다른 점포로 얻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 c. 저, 하여튼, 좋은 뜻을 갖고 시작 하셨으니까요...
- d. 그렇지만,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환자의 분변을 통해서 오염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앞서 살펴본 예문에서도 (다만 (g)를 제외하고) 생략된 청자 논항의 용언어미에는 존칭표시 '-시'가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존칭어미 '-시'의 유무가 청자 논항이 생략되었는지를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3 주어 존칭 표시의 유형

화자 논항이 생략된 구문 중에서 주어 존칭 표시 어미 '-시'의 출현 유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유형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7) 본용언에 표시되는 경우

황에 따라 그 출현여부가 좌우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a. 오늘 사모곡 하신다 그러셨죠?
- b.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창업하셨네요?

이 경우 생략된 논항이 발견된 해당 절의 본용언 어미에 존칭표시 '-시'가 발견되고 있다.

(8) 보조용언에 표시되는 경우

- a. 꽃가게를 하고 계시는데
- b. 상당히 좋은 업종을 택하고 계세요

다음으로 [용언+보조용언]의 구성을 갖는 경우 우리말 존대법의 영향으로 보조용언에 '-시'가 첨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두 가지 유형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경우였다.

(9) 의포절 용언에 표시되는 경우

- a. 아, [가정에 있는 일반 고객들한테도, 아, 주문 받아서 배달 나갈 수 있는] 배달 형태의 꽃가게를 하셔야 됩니다.
- b. 물론 [삼 개월 정도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 하십시오.
- c. 아, [스스로 만들어서 작품을 판매한다는] 개념으로 운영을 하시면은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어 청자 논항이 생략된 절의 용언에는 존칭 어미 '-시'가 발견되지 않고, 상위절의 용언에 '-시'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물론 상위절의 주어도 청자를 지칭하고, 또 생략되어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었다.

(10) 기타

- a. 아,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화장품 전문점으로 업종전환 한다는 것은 반됩니다.
- b. 별로 비싸지 않으니까, 경동시장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한의원에 가서 그걸 구하시가지고, 그걸로 차를 꿴입니다.
- c. 만약에 업종을 전환하게 된다면은, 인제 화장품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어떡할 경우에 있는가?

마지막 유형으로, 예외가 되는 현상들을 나열해 보았다. 이 경우, 존칭 어미 '-시'가 나타나지 않은 채 청자 논항이 주어 위치에서 생략된 경우이다. 대화 이해 시스템 구현에 가장 어려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이지만, 그리 많이 발견되는 경우는 아니다.

7.4 생략된 화자 논항의 의미 복원

청자를 지칭하는 명사구가 일반 대화체 문장 내에서 생략된 경우 크게 영향을 미치는 언어적 요소들로서 화행과 주어 존칭 표시의 두 가지를

실제 대화자료를 중심으로 구분해보았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생략된 청자 논항을 복원시키기 위한 일반화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집. 254-263.

- (11) 지시 화행(directives)을 갖는 문장에서 본용언, 보조용언, 혹은 상위절 용언에 존칭어미 '-시' (혹은 주체 존대 어휘)가 나타나는 경우 생략된 주어 논항은 청자일 가능성이 높다.

## 8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부대화의 유형 분류에 대한 기존의 이론을 일부 수정보완하고, 부 대화의 생산 지점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화행의 유형을 분류해 보았다. 그리고 부대화 표층표지의 하나인 '예', '네' 등이 갖는 화행을 구별해 보았다. 나아가 지시성 (directive) 화행이 청자 논항의 생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문법현상의 하나인 주어 존칭표시 '-시'의 출현 유무가 청자 논항의 생략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실제 대화체 데이터를 분석해 봄으로써 그 일반화된 규칙을 세워 보았다.

## 참고 문헌

- [1] 서정연 외. 1997. "대화 이해 및 생성을 위한 대화 인지모형 연구." 인지과학회 춘계 학술발표 논문집. 24-30.
- [2] 이현호 외. 1997. "한국어 대화체의 부 대화 유형 및 담화 표지에 관한 연구" 제 9 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477-492.
- [3] 홍 민표. 1997. "대화체 이해 시스템에서의 격 조사 생략현상에 대한 한 기술적 고찰" 제 9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160-166.
- [4] Searle, J. R. 1976. "The Classification of Illocutionary Acts." *Language in Society* 5:1-23. Reprinted in *Expressions and Meaning: Studies in the Theory of Speech Acts*, 197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29.
- [5] 이현정, 서정연. 1997. "문장의 화행을 반영한 한-영 대화체 기계번역" 제 9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71-276.
- [6] 이 현정. 1996. "한국어 대화체 문장의 화행 분석." 서강대학교 전산학과 석사학위 논문.
- [7] 이재원, 서정연, 김길창. 1995. "인간의 대화를 이해하기 위한 대화계획의 인식 및 추적." HCI '95 학술대회 논문집. 55-61.
- [8] 이재원, 서정연, 김길창. 1992. "계획에 기초한 대화이해 시스템에 관한 연구." 제2회 인공지능 신경망 및 퍼지 시스템 종합학술대회 논문